

God's Grace to Israel in Egypt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창 46:1-34)

Trusting God in the Unknown

After 22 years the Lord through Joseph had finally exposed his brothers' sin. After Judah's confession, Joseph's forgiveness enabled reconciliation in Egypt. The greater story to which it points is Jesus Christ & the grace of God to expose our own sin to bring us to the end of ourselves to receive His forgiving, reconciling, saving grace.

At the end of chapter 45 Jacob's sons told him all that Joseph had said & when Jacob saw the distinctly Egyptian wagons....he said, "It is enough; Joseph my son is still alive. I w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 Now the focus of chapter 46 switches to Jacob we see increasingly called 'Israel'to show God's grace to Israel *the father* & Israel *the family* in Egypt.

We can't overestimate how daunting the move from Canaan to Egypt would have been for the man, Israel. At 130 years of age...the discovery that Joseph was alive & ruling the land of Egypt — brought a great shock — 'his heart became numb.' Not only did he suddenly have to process the sin of his sons, but also the startling joy that Joseph was alive.

Joseph's call to Egypt, though life-saving — was also a great unknown for his father. We see Israel respond in faith.....& God's great faithfulness to His gracious covenant unfold. Israel the man Israel the family experience God's grace that came by faith in trusting the unknown future to God.

미지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

22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마침내 그의 형제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유다의 고백 이후 요셉의 용서로 그의 형제들과 요셉은 애굽에서 화해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며, 그의 용서와 화해,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45 장 마지막 부분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버지께 요셉이 말한 것을 전하며, 요셉이 야곱을 태우기 위해 보낸 수레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죽어도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오늘 46 장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이는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매우 가슴 벅찬 일이었을 것입니다. 130살이라는 나이에, 자기 아들이 살아있어 애굽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성경은 그가 “*여리동절 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됨과 동시에, 그가 살아 있음에 큰 기쁨을 누립니다.

요셉이 애굽 땅으로 야곱을 초청함은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함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앞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그 큰 신실하심이 그 은혜 언약을 통해 어떻게 펼쳐지는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That's the point for each of us...though we have fears...as we trust Him...it's then that we particularly experience His grace. At times our response to fearing the unknown..... can be to lose focus By setting our hearts on earthly things when that happens, our practical experience of God's grace becomes lost Our spiritual joy & fervour dries up

Are you drawing near to the Lord in the great unknown of what lies ahead....or are the fears of the present & future beginning to consume you to the point where life is starting to come apart? Well....in many ways we're a mix of both at times we draw near in humble trust....at other times our fears become overwhelming & we withdraw from the Lord in prayer & devotion.

The Word is grace to us that trusting God with our earthly future is to glorify Him & to taste & see that He is good.The prospect of a move to Egypt for Israel with its uncertainty was the occasion for his movement towards God.....

Grace in Fear (1-4)

v1, 'Israel took his journey with all that he had and came to Beersheba, and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 of his father Isaac. '[MAP]

Beersheba first comes up in Genesis 21...in the context of a covenant that Abraham & a regional king called Abimelech made to establish peace. Abraham owned a well in that spot...& Abimelech's servants had seized it from him...so from then on it became known as Beersheba...literally 'well of the oath'.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물론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도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경험을 잃게 되며, 영적 기쁨과 열정은 메마르게 됩니다.

미지 가운데 있는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나요, 아니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나요? 글썄요... 우리의 삶은 여럿으로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나타냅니다...우리는 때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며,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기도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우리 미래에 관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애굽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의지 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두려움 안에 은혜 (1~4 절)

1 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지도>*

브엘세바는 창세기 21 장에서 아브라함과 당시 지역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맺은 평화 언약에 배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하고 있던 우물을 아비멜렉의 부하가 빼앗았고, 그때부터 그곳을 브엘세바 라고 불렀으며, 문자적인 의미는 “언약의 우물” 입니다.

In Genesis 22, after God tested Abraham as to whether he was willing to give up Isaac...& he proved faithful...the Lord repeated his promises & Abraham returned to Beersheba to live for a time. Then in Genesis 26...at that time there was also a famine....& the Lord told Isaac not to go down to Egypt...later in the chapter we read that he went to Beersheba where the Lord appeared to him & repeated His covenant promises to bless him & multiply his offspring. **Beersheba was a special place associated with God's promises ...**

The fact that Jacob began his journey by stopping & offering sacrifices that would have been thank offerings to God....shows the events had humbled him to turn again to the Lord....to seek His will & receive His gracious guidance. It shows he also believed the promises of God to his father & grandfather...from that came the added grace of the Lord's revelation...

v2, 'And God spoke to Israel in visions of the night and said, "Jacob, Jacob." And he said, "Here I am." Then he said,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there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I myself will go down with you to Egypt, and I will also bring you up again and Joseph's hand shall close your eyes."

For God to have instructed Jacob not to be afraid...shows that he was very afraid to go to Egypt. Notice the reasons God gives — that Egypt would be the place where He would make him into a great nation....that He would be with him....that Joseph would close his eyes.

창세기 22 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시험해, 그의 충실함이 증명된 후에, 주님께서서는 그의 약속을 다시 언급하시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돌아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6 장에서, 땅에 기근이 있었을 때, 주님께서서는 이삭에게 애굽 땅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그리고 막바지 부분에서 보게 되듯이 이삭은 브엘세바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언약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심으로 그에게 복을 주고 그의 자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이런 맥락에서 브엘세바는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매우 특별한 장소였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멈춰, 희생 제사를 드림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였으며, 그가 겸손 가운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 장소가 브엘세바였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이삭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을 믿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이런 배경에서 주님의 은혜는 더욱 밝히 드러납니다.

2~4 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심은,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나타냅니다...이 가운데 왜 주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이유는, 주님께서 야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며, 그와 함께하시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하실 것이기 때문에입니다.

Sinclair Ferguson, “God meets with him and says to him, ‘Jacob, don’t be afraid’.
He is a weak 130 year old A poor, stumbling believer and God comes and says to him,
“don’t be afraid”....

There are many true Christian believers who are a mass of fears — you wouldn’t think so it to look at their faces or in conversation but they are a mass of fears. For me simply to say, ‘don’t be afraid ’.... is a counsel of despair to someone gripped by fears. That’s not simply what God says, but God says in essence to Jacob, ‘don’t be afraid *for I am God* and you have *more reasons not to fear* than you have *reasons to fear*.’

God calls us to turn to His word for the grace of faith that puts our fears to flight. “I am with you....to the very end of the age”

Grace in Covenant Faithfulness (5-27)

In the next section from v5-27 we read that Jacob set out from Beersheba to Egypt. This middle part of the chapter details the names of Jacob’s descendants his children & their children to underscore the fact that God’s covenant word to multiply Abraham’s/Isaac’s & Israel’s descendants was unfolding.

But at the end of that section...we read v27 that ‘the sons of Joseph, who were born to him in Egypt were two. All the persons of the house of Jacob who came into Egypt were seventy.’

Sinclair Ferguson 의 말과 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늙고 연약한 130 살의 연약한 노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외면적으로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함은, 절망의 조연과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이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이유보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더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믿음의 은혜를 위해,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실한 언약안에 은혜 (5~27)

5~27 절까지 우리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애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이 구절에서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 자녀들의 족보를 보게 되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의 자손들을 창대케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27 절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칠십 명이었더라”

Back in Genesis 10 there's a detailed list of 70 nations descended from Noah. In Genesis 11 we read about those people as they tried to make a name for themselves — as they repeated the pattern of sin in trying to set up their own kingdom against God. God's curse of judgement fell on the nations at the time of the Tower of Babel.

Just after that, in Genesis 12, God called Abram & gave him the promise of becoming a great nation — that now — are being fulfilled through Abraham's grandson, Israel. At this we're to marvel at God's faithfulness He is trustworthy You don't need 'great faith' Simply to see the way that the Lord was fulfilling His covenant to Israel in the new nation...& to believe. Through all the trials, traumas & triumphs of Israel's long life....God had been working out His covenant blessings

The Lord does the same no less for all His people — for those who trust Jesus as Lord & Saviour. He receives glory as we trust Him particularly when the struggles of life might seem set to break us ... when the present seems dark & the coming days uncertain....He reminds us that He is working out His purposes & nothing will thwart them! We're all in danger — in the face of fears all around & within of shifting our focus from the Lord & His faithfulness to ourselves & any number of earthly supports that claim to be the answer...

Grace to Israel in Egypt (28-34)

V28, '...had sent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show the way before him in Goshen, and they came into the land of Goshen. '[MAP]

창세기 10 장에서, 노아로부터 시작된 70 족속을 보게 되고, 창세기 11 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세움으로, 이들 스스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 했다 합니다. 그리고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임합니다.

이 사건 이후 창세기 12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이런 약속이 아브라함의 손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봅니다. 이스라엘 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의 시험과 트라우마,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 여전히 이처럼 역사하십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를 부시려 하고, 어둡고, 확실치 않은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두려움을 만날 때,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 자신과 세상 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

28 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Notice again that it's Judah — not Reuben the oldest, nor Simeon or Levi the next in line who Jacob confirmed as the leader among the tribes of this new nation...to go to the best land in Egypt — the area of Goshen — the eastern Nile Delta
Here was grace to Israel the man — grace to Israel the nation as they entered Egypt

Now for the long-awaited reunion....V29, 'Then Joseph prepared his chariot and went up to meet Israel his father in Goshen. He presented himself to him and fell on his neck and wept on his neck a good while. Israel said to Joseph, "Now let me die, since I have seen your face and know that you are still alive."

Well, though Israel's reunion with his son Joseph brought great tears of delight mixed with sadness...For Israel to have wished for death once he'd seen Joseph alive doesn't mean that his joy was complete....as much as that he was so emotionally, mentally, & physically exhausted — though he still trusted God.....he'd lost his joy. Isaiah's mention of the bruised reed comes to mind. Over the decades....the Lord had been gently dealing with this bruised reed. Jacob's name carried the meaning of 'deceitful.' True to his name, he deceived his father, Isaac as he tricked his brother Esau out of his birthright...Now for more than two decades ten of his sons had deceived him.

The Lord had been dealing with the deceit in the family. Here was real opportunity for Israel to be in utter awe of the Lord's faithfulness....in giving him & his sons — grace when they all deserved judgement.

여기서 다시 주목할 점은 야곱이 장자인 르우벤 이나, 그다음 서열인 시므온, 혹은 레위가 아닌 유다를 형제들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으로 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센 땅은 나일강 하류 달테 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로써 여기서 우리는 사람인 이스라엘에게뿐만 아니라, 민족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가족들이 모두 만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29~30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이사야서 42:3 절 말씀과 같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인 야곱을 그 온유함으로 대하셨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속이는 자'로 야곱은 이에 걸맞게,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인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얻었습니다...그리고 수십 년 동안 야곱은 그의 열 아들들에게 속아 살아, 요셉인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속이는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그의 아들들을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외하며 찬양할 기회가 여기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Instead of looking forward to the provision of God's grace with Joseph in Egypt Rather than living with thankful zeal for the remarkable way the Lord was fulfilling His covenant....

Or making the most of the remaining time of his days to serve the Lord by leading his spiritually reformed family to greater reformation..he just wanted to die. It's a word of grace to all who might find themselves weary & burdened...so exhausted from life's struggles that you think the best years are past...joy about prospects for the future has all but gone. In Christ, while ever we draw breath....the Lord has plans — good work that He has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The Lord had great plans for Jacob & his family — not simply to be preserved...but to flourish in Egypt under the wisdom of Joseph...

v31, Joseph said to his brothers and to his father's household, "I will go up and tell Pharaoh and will say to him, 'My brothers and my father's household, who were in the land of Canaan, have come to me. And the men are shepherds, for they have been keepers of livestock, and they have brought their flocks and their herds and all that they have. 'When Pharaoh calls you and says, 'What is your occupation?' You shall say, 'Your servants have been keepers of livestock from our youth even until now, both we and our fathers, in order that you may dwell in the land of Goshen, for every shepherd is an abomination to the Egyptians.'

And what we see in God's remarkable sovereignty by this tradition of shepherds being abominable to the Egyptians taking root among them...is that through Joseph's shrewd counsel...the Israelites were set to remain separate & thrive in the land of plenty...until the day under a new Pharaoh... under the Lord's mighty sovereign Hand...it would become a land of slavery...& God would preserve them by bringing them out...

그러나 여기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요셉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죽어도 죽하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 낙심하고 지쳐 더 미래를 기쁨 가운데 기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며, 그 선하신 계획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낙심하는 야곱을 통해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땅 안에서 요셉의 지혜 가운데 번성케 하십니다.

31~34 “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는 전통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목축하는 사람이었다는 이유로, 바로의 명령 아래, 분리되고 풍요로운 땅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Grace...from God to Israel to us

What began as a test of faith for Israel had become the occasion for God to pour out His grace on the multiplying family. Though unsure weak & weary Israel took the step

The Lord honoured him fulfilling his covenant with Abraham to bless Israel the man & Israel the nation in Egypt where they would become great & cement the prominence of shepherding among them

Out of which 8 centuries later the shepherd King David would arise...from whom the ultimate shepherd King would come...Our Lord Jesus....who doesn't despise us for our fears.....He doesn't break the bruised reeds that we are....But loves us so much He gave His life to pay the price for our sin ... to conquer death that God's promises of life, life to the full, life eternal would be ours by faith.

In the great unknown of what lies between now & when we meet Him....Though we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we shall fear no evil....for our great shepherd is with us....His rod & staff comfort us. So as fear of the present & future threaten to consume us.....our loving Lord calls us to draw near to Him in faith.....

Not only does He comfort us....but promises that we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us.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으로 부터의 은혜

이스라엘을 위한 믿음의 시험으로 시작된 것이, 그의 가족에게 큰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됨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는 확실치 않았고, 약하고, 피곤했지만, 그는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땅에서 번성케 함으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8 세 가기 지난 후, 다윗이 왕으로 오르게 됨을 보게 되고, 이런 다윗의 자손 가운데 궁극적인 목자시며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그는 우리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며.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 그의 목숨을 희생하신 분입니다...그리고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비록 알지 못하는 미래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비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에워싸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주님께로 가까이 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십니다.